

이상(李箱)의 시와 시대적 저항성*

김효신**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반파시즘적 정서
3. 이단아 이상의 독특하게 튀기 전략
4. 이상의 시에 드러나는 시대적 저항성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시인 이상에 대한 일반의 평가, 즉 한국 모더니즘의 일반적 경향인 시대와 동떨어진 존재, 혹은 식민지 현실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시인이라는 평가가 일부 왜곡된 면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시 「광녀의 고백」, 「AU MAGASIN DE NOUVEAUTES」(1932), 「열하악도 No.2」, 「보통기념」, 「오감도」의 「시 제십이호」(1934)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읽혀지는 반파시즘적 표현 및 심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동시대적 암울함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올곧은 지식인들 누구나 근본적으로 품고 있던 시대적 저항적 정서들을 드러내고 있던 이상이었기에 단순히 시대에 무관심했던 초현실주의자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비록 사후에 김기림으로부터 “순교자”로까지 불리게 된 이상이지만 그 자신 이미 당대에 “시대의 혈서”를 통해서 “시대”를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시대적 저항성을 「이상한 가역반응」의 「공복」, 「BOITEUX · BOITEUSE」, 「건축무한육면각체」의 「AU MAGASIN DE NOUVEAUTES」, 「오감도」의 「시 제일호」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제어: 이상, 시대적 저항성, 반파시즘, 저항의식, 모더니즘.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작가 중 모더니즘적 형식충동을 가장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존재는 다름 아닌 이상(李箱)이다. 이미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시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매혹적인 시인이기도 하다. 시인 이상은 시대와 동떨어진 존재라고 흔히들 평한다.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작품성향을 운운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 이상의 삶이 기이했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평가나 이미지 또한 그러하다.¹⁾ 이미 죽은 인간을 후대에서 제멋대로 각색하는 것이야 혼

-
- 1) 선행 연구 중에서 특히 고은은 이상의 모더니즘을 ‘그의 재능에 현실 도피를 접착함으로써 그의 국제주의 문학을 지향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 김준오는 이상 문학의 모더니즘을 서구 문학의 영향으로 간주하며 부정의식에서 출발하는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전통시와는 물론, 시문학학과와 카프파의 시들과도 대립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식민지 현실에 무관심한 작품 성향은 특히 이상문학을 병리적 관점에서 고찰했던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다. 대표적으로 고석규는 신경증적 콤플렉스가 그의 문학 세계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주장했고, 김중은은 이상문학의 본질을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보고 그 불안의 요인을 그의 성장 과정과 연관시켜 유아기의 동일시의 붕괴, 강요된 생이별에 의한 불안심리, 형제 충돌에서의 패배 등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불안이 그의 문학에 있어서 상동증과 같은 양가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정귀영은 이상의 생후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외디프스콤플렉스, 새디즘, 근친상간, 도착성욕증 등의 반영으로 이상문학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두영은 『12월12일』을 중심으로 인간사와 작품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그 공통점 - 환상, 백일몽 · 무의식 세계의 형상화 -을 밝히고 있다. / 기이한 삶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는 가장행위나 보복심리에 의한 자아 유희로 보는 관점의 연구가 있다. 정명환은 현대를 맞이할 소지가 없다는 자의식은 그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현대적이며 새롭게 보이려는 역설적 시도(수자를 뒤집기 혹은 띄어 씌기의 무시)로 나아가게 했으며, 그의 시가 자신의 막연한 20세기에 대한 추구와 그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상을 권태로 몰아넣고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자아유희적인 놀음을 벌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식은 이상이 구인회 동인들에게 자신을 뚜렷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기괴하게 보이는 수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위장이 탄로났을 때 권태에 빠진다고 보고, 즉 그의 문학 행위란 자아치매 현상을 감추기 위한 자아유희 문학임을 밝혔다. 같은 언어 유희로

한 일이지만 이상에 대한 각색만큼 다양하고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예는 찾기 힘들 것이다. 시대적 상황을 차치하고라도 개인적 삶의 비극적 상황만으로도 이상은 온갖 시련과 병마와 가난에 시달렸지만 시인 이상은 젊음을 구가했고 재기에 넘쳤다.

혹자는 1930년대 모더니즘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무엇보다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상황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폭발적인 발전에 따른 인간의 단자화, 기호화, 상품화, 고독, 권태 등에 주목했던 하나의 선취된 환상세계이자 대단히 모험적인 문학운동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1930년대 모더니스트들은 발생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미래를 개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선취한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상상계와 상징계, 보편과 특수, 개념과 감각, 정신과 물질, 질서와 자발성 사이에 해결하기 힘든 모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문학은 그러한 모순을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병존시키려는 조정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상의 모더니즘적 형식충동 역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일반의 경우와 다르지 않아서 ‘20세기 문학’이라는 미적 이데올로기에 강박적으로 집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십 년 앞서간’ 어떤 현실, 혹은 문학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한국 모더니즘의 일반적 경향인 시대와 동떨어진 존재, 혹은 식민지 현실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본 견해이지만, 김열규의 연구는 이상 시에서 언어유희는 단순한 장난이나 자아 위장을 위한 포즈로서의 유희가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세계에 있어서 시인의 존재탐구와 관련된 의미에서 문학 자체를 유희로 볼 때의 유희를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철범은 이상의 문학을 비정상적인 부부생활에서 오는 콤플렉스, 관념의 유희, 변태적인 지적 유목민의 문학으로 보았고 김우중은 이상의 문학을 섹스를 통한 유희와 재치있는 감각으로 물의와 인기를 얻은 자학적이며 현실도피적이라 단정 짓고 있으며, 마광수는 이상이 관심가졌던 문제가 섹스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실험, 그리고 회의에 있었다고 보았다. 류광우, 『이상문학연구』, 충남대학교출판부, 1993, 11쪽~13쪽.

시인이라는 일반의 평가는 과연 정당한가를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열려 있는” 난해한 시들의 저자인 시인 이상의 시세계를 연구하여 동시대적 암울함과 고통을 어떻게 스스로 견디어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시 창작 상에서 극단적인 형식과괴를 감행하면서 일제강점기라는 특수 상황을 전위적 모더니스트로 살아갈 수 있었던 시인의 내면세계에 현실에 대한 촉구, 시대에 대한 저항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지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2.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반파시즘적 정서

오늘날 근대문학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말하고 있는’ 계몽의 정신에 대한 주석달기가 아니라 텍스트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는’ 요소, 다시 말해서 행간읽기에 대한 발견과 재평가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각각의 문학 유파들이 내세웠던 의식적인 충위나 그에 근거한 각 문학이념의 새로운 유포와 이전 문학과와의 차이만을 지나치게 주목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 때문에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요인들이 왜곡되거나 은폐된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시 읽기도 텍스트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는’ 요소들을 시인이 직접 말하고 있는 표현들과 더불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왕의 전반적인 비평의 추세도 이상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부하기보다 독자적 시세계, 전위적 모더니스트로 더 비중을 두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상 시인 역시도 비평가 류보선의 말대로 “정신적 고아”²⁾를 자처했다고 볼 수

2) 류보선, 『기교예의 의지, 혹은 이상 문학의 계몽성』,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소명출판, 2005, 224쪽.

있다. “자본주의적 역동성이 민족적 전통이라는 기존의 초자아를 한순간에 약화시킨 시점에서 한국 근대문학이 출발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을 것”³⁾이다. 정신을 의지할 지주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고아” 시인 이상은 시대를 순응하는 시작품들을 발표하기 보다는 시대와 별개의 삶을 추구했다. 이상을 저항시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상의 시작품들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행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 시에 드러난 직접적인 시어들로도 동시대를 견디어내고자 애썼던 갈등과 고뇌의 흔적들이 보인다.

역사적 파시즘 시대인 일제 강점기를 견디어내려는 내면적 갈등과 고뇌의 흔적들은 대표적으로 동시대를 거스르는 반파시즘적 정서들이다. 여기서 우선 반파시즘적 정서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파시즘적 정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라는 포장으로 문혀버린 근대적 경험의 온갖 굴절들은 파시즘이라는 강력한 그러나 완결되지 않은 이데올로기에 얹혀있다. 한반도에서 파시즘은 친일의 잣대나 특정 권력의 상징으로 이해하기보다, 역사적 굴레에서 어쩔 수없이 체제화 되어 한반도 전체를 근대화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모더니티의 한 속성으로 이해한다. 파시즘은 “하나의 완결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다른 것과 결합하여 자신을 실현하는 유동적, 매개적 존재”⁴⁾이며 파시즘이 현대 사회의 극단적 성향을 종합하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며, 일시적인 정치 이념이나 운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발전하였고, 더 나아가 현대인의 심리적 무의식으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파시즘이 모더니티의 주요한 속성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반대의 성향이나 이념까지도 자신 안에 끌어들여 종합하는 파시

3) 같은 글, 같은 쪽.

4) 김철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19쪽.

즘의 야누스적 성격은 어떤 요소들로 분석되거나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지상주의 또는 민족지상주의는 파시즘의 주요 특성 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념적 요소들의 상극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들을 결합·배치·구성하고 관계 짓는 방식의 국가주의적·전체주의적 폭력성은 파시즘의 자기 동일성을 이루는 주요한 기반”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극단적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국가주의나 강력한 인종주의로 표출된 것이 실제 파시즘의 범례이다. 먼저 개인이 있고서야 사회가 있다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정반대되는 파시즘의 울타리 안에서는 사회를 떠난 개인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추상적 공론에 불과하다. 모든 개인과 주체는 국가의 도구로,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 가치조차 없다. 또한 국가지상주의에서는 민족의 영광과 자손의 번영의 의미의 귀결 역시 국가이며, 국가의 존재 안에서만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결혼, 그리고 결혼에 따른 생산 기능 역시 국가의 발전과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로 이러한 극단적 민족주의가 파시즘 정치 권력의 시너 역할을 하게 한 주요한 계기이자 동력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내셔널리즘’을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한국의 저항사적 관점에 겹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지상주의에 뒤이어 파시즘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특성이 인간의 평등원리 부정이다. 자유에 관한 인간의 자연권을 부인하며 인간 그 자체로서의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영웅적인 지도자 논리가 작용하며 영웅적인 지도자만이 국가 통솔의 임무를 위임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파시즘의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의 귀결인 동시에 독재주의, 절대 복종주의, 폭력주의 등의 파시즘 속성이 이러한 지도자 원리에서 나오

5) 같은 쪽.

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간의 평등의식이 완전히 배제된 파시즘은 인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특성과 관계된다. 극우의 파시즘은 극좌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와 완전 대치되는 것이다.

이런 기존 체제를 부정하였던 파시즘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닌 행동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화를 선호하는 모든 논리는 파시즘과 거리가 멀며, 반평화적인 정신을 개인의 삶 속에 각인시킨다. 이는 극대화된 행동 지향적 특성인 전쟁 찬양이라는 특성과 관계됨을 의미한다. 평화와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파시즘은 강자의 약자 지배를 자연 원리로 인정하기에 국제주의에 대한 어떠한 타협적 원칙도 있을 수 없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파시즘은 대중동원을 애용한다. 이 대중동원에 작용하는 특성은 이미 앞서 이야기한 바 있는 국가지상주의, 또는 민족지상주의이다. 또한 전쟁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최대치로 활용하고자 한다. 남성성 예찬과 동시에 여성성을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이용하려 한다. 그 일례로 모성을 강조하여 인구 증가를 위한 여성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안팎으로 착취하고자 한다.⁶⁾

요컨대, 파시즘적 정서는 국가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 영웅적인 지도자 또는 독재자 예찬, 공산주의 부정, 전쟁 및 폭력주의 예찬, 대중동원, 남성성의 극대화 및 여성성 비하 내지는 폄하 등의 요소들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바로 이것들이 파시즘을 지배하는 방식이며, 이것에 반하는 정서들이 바로 반파시즘적인 정서들, 즉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반하는 정서, 반혁명적 정서, 반영웅적 정서, 반독재적 정서, 사회주의적 정서, 평화주의적 정서, 페미니즘적 정서 등을 가리킨

6) 파시즘 관련 자료는 김효신, 『1930년대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파시즘 양상 연구』, 『한국 사상과 문화』 제57집, 『이탈리아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 비교 소고』, 『이탈리아어문학』 제21집 참고.

다. “파시즘은 사실상 가장 순수한 형태의 남성 이데올로기”이며 “역사적 파시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일차적 역할이 가정과 출산에 있음을 주장”⁷⁾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곧 ‘출생률 증가’ 캠페인과 맞물려 있고 이는 여성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국가에 충성하는 길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사회가 남성적 가치에 의해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전쟁 퇴역군인을 남성적인 민족적 사상의 보고이며 민족 재생의 대리인으로 보았다. 군복무는 민족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증명하고, 사회 전체에 전승되어야 하는 성질인 남성적인 용기, 영웅주의, 자기희생, 동지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능력과 복종을 장려”⁸⁾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반파시즘적인 정서에는 이러한 남성적인 가치에 반하는 정서들뿐만 아니라, 동성애, 여성의 수다스러움까지도 포함한다. 파시스트들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했고 여성이 침묵을 지키길 기대했다. 더 나아가 파시스트들은 “성욕이 인종의 재생산에만 맞추어져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성애”⁹⁾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상의 시 『광녀의 고백』, 『AU MAGASIN DE NOUVEAUTES』(1932), 『열하약도 No.2』, 『보통기념』, 『오감도 - 시제십이호』(1934)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읽혀지는 반파시즘적 표현 및 심상들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광녀의 고백』에서는 파시즘이 여자의 건강과 풍요다산을 기획하고, 임신과 여장부 같은 모습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되는 시적 정서를 갖고 있으며, 여성의 나약함, 낙태 등을 표현하는 반파시즘적 정서가 잘 드러난다.

7) 패스모어, 케빈, 『파시즘』, 강유원 옮김, 뿌리와이파리, 2007, 204쪽.

8) 같은 책, 205~206쪽.

9) 같은 책, 207쪽.

<…>

蒼白한여자.[…]온갓밝음의太陽들아래여자는참으로맑은물과같이떠돌고
있었는데참으로고요하고매끄러운表面은조약돌을삼켰는지아니삼켰는지항상
소용돌이를갖는靛色한純白色이다.<…>

여자는물론모든것을拋棄하였다.<…>

여자는마침내落胎한것이다.<…>¹⁰⁾

이어령은 여자의 창백성을 성적인 것 또는 성적인 비밀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보고 있지만, 핏기 없는 창백한 여자가 주는 이미지는 씩씩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파시즘적인 정서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게다가 “온갓 밝음의 태양들 아래” 이성적인 “맑은 물”이던 여자의 존재가 성적인 ‘소용돌이’로 해석된다는 이승훈¹¹⁾ 역시 ‘퇴색한’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간과하고 있다. 태양은 남성성을 대표하는 존재이고 그러한 남성성들 아래 떠도는 존재, “고요하고 매끄러운 표면” 유미주의적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 같은 존재가 무서운 ‘소용돌이’를 품은 “퇴색한 순백색”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물론 남성성을 중시하고 여성성을 멸시하려는 태도, 다시 말해서 파시즘적인 정서를 미래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광녀의 고백』은 미래주의적인 면도 드러낸다. 같은 작품 안에 반파시즘적인 정서와 파시즘적인 정서가 공존하는 셈이다. 여기서 잠시 파시즘의 이중적인 면을 잘 나타내는 글을 참고로 살펴보자.

파시즘은 수수께끼 같은 면모를 띠고 있다. 그 안에는 가장 균형 잡힌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권위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반란을 조직한다. 그

10) 이상, 『증보 정본 이상문학전집 1; 시』(김주현 주해), 소명출판, 52~54쪽.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시작품 주텍스트로 삼는다. 앞으로는 이상^a로 표기함.

11) 이상, 『이상문학전집 1 - 詩』(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37쪽. 주텍스트인 이상^a와 구별하여 이상^b로 표기함.

것은 당대의 민주주의와 싸우는 한편으로 과거의 지배의 회복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강력한 국가의 용광로인 척하지만 파괴적인 분파나 비밀결사처럼 국가의 해체에 아주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이용한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거쳐 파시즘에 접근하든 그것은 어떤 것이면서 동시에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해 A이면서도 A가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¹²⁾

『AU MAGASIN DE NOUVEAUTES』에서는 “名啣을깃밧는軍用長靴”¹³⁾라는 표현을 통해 반파시즘적인 정서를 읽을 수 있고 이 ‘군용장화’는 이상의 시 뿐만 아니라 소설 등의 다른 작품들 속에서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시 『오감도 - 시제십오호』의 “義足を담은 軍用長靴가내꿈의 白紙를 더럽혀노았다”¹⁴⁾ 든가, 소설 『失花』의 “午前一時 神宿驛 뚝에서 비칠거리 는 李箱의옷깃에 白菊은 간데없다. 어느長靴가 깃밧았을까?”¹⁵⁾에서 두 작품 다 장화가 등장하고, 여기서의 장화는 ‘군용장화’가 되었던 그냥 ‘장화’가 되었던 ‘백지’를 더럽히고 ‘백국’을 깃밧는다. “더럽히고 깃밧는 주체의 환유인 ‘군용장화’가 권력의 형상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당겨 말하자면 이것은 경성 거리를 장악하고 있는 파시즘적·카프카적 권력과 오이디푸스적 권력을 동시에 함축하는 미묘한 상징”¹⁶⁾이다. 그리고 시 『熱河略圖No.2』에서는 “1931년의風雲을寂寂하게말하고있는탱크가早晨의大霧에 赤褐色으로녹슬어있다”¹⁷⁾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반전적인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시 『普通記念』역시 파시즘 전쟁에 대한 거부감을 간접적으로 드러

12)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파시즘에 대하여』(1927)에서. 재인용, 패스모어, 케빈, 5쪽.

13) 이상a, 71쪽.

14) 같은 책, 98쪽.

15) 이상, 『증보 정본 이상문학전집 2: 소설』(김주현 주해), 소명출판, 363~364쪽.

16) 신형철, 『이상 시에 나타난 시선의 정치학과 거울의 주체론』, 『이상 -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 도서출판 역락, 2006, 288쪽.

17) 이상b, 171쪽.

내고 있다.

市街에 戰火가 일어나기前

亦是 나는 「뉴—톤」이 가리키는 物理學에는 淸無智하였다.

<...>

계집을 信用치않는나를 계집은 절대로 신용하려들지 않는다. 나의 말이 계집에게 落體運動으로 영향되는 일이 없었다.

계집은 늘내말을 눈으로 들었다내말한마다가계집의 눈자위에 떨어져 본적이없다.

期於코 市街에는 戰火가 일어났다 나는 오래 계집을 잊었었다 내가 나를 버렸던까닭이었다.

주제도 더러웠다 때끼인 손톱은 길었다.

無爲한 日月을 避難所에서 이런일 저런일

<...> 18)

이승훈은 「보통기념」이 “근대과학의 모순, 곧 근대과학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과 ‘나’와 ‘계집’ 사이에는 근대과학의 원리가 작용치 않는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해설한다. 실제로 이상은 이 시를 남의 일 이야기하듯, 방관자적으로 “시가에 전화가 일어”남을 노래하고 있으며 아주 건조하게 어떠한 시대적 저항도, 반파시즘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써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주의 깊게 시를 음미하면 전혀 신경쓰지 않은 듯한

18) 이상a, 84~85쪽.

이 시 작품 안에서 강한 반파시즘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과학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고무했던 파시즘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과학의 대표주자인 물리학, 전쟁 무기 생산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물리학에 무지한 자신을 일깨우는 것은 파시즘의 과학 숭배 속성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집을 신용치 않는 나”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미래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기어코 시가에는 전화가 일어났”고 “오래 계집을 잊”은 존재 역시 자신을 버렸음을 깨닫는다. 이어지는 시구인 “주체도 더러웠다. 때 끼인 손톱은 길었다”는 표면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방치된 존재를 일깨운다. 그런데 이는 파시즘 시기에 강조된 바 있는 위생법, 위생개념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무심하게 나열된 것 같지만, 그 자체로 반파시즘적인 정서, 시대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방망이질 하면서 빨래하는 광경을 노래한 『鳥瞰圖 - 詩第十二號』에서는 빨래, 그것도 흰 빨래감들이 흰 비둘기에 비유되고 있고 이는 다시 의미의 확대가 이루어져 전쟁과 평화로 연결된다.

때문은빨래조각이한몽탕이空中으로날라떨어진다. 그것은흰비둘기의떼다.
이손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戰爭이끝나고平和가왔다는宣傳이다. 한무더기비둘기의떼가깃에묻은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망이로흰비둘기의떼를때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 空氣에숨겨정이가지저분하게 묻으면흰비둘기의떼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 19)

『시제십이호』에서는 전쟁과 파시즘에 대한 이상의 상념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망이로흰비둘기의떼를때려죽이는불결한전쟁이시작”됨을 알리며 전쟁으로 오염된 “공기에숨겨정이

19) 같은 책, 45쪽.

지저분하게문으면” 또 다시 저 편으로 달아날 비둘기때 걱정을 한다. 『시 제십이호』에서는 “때려 죽이는 불결한” 전쟁에 항거하는 행위인 비둘기들의 저편으로 날아감은 이상 자신의 항거이자 반파시즘적 정서이다. 전쟁을 부추기고 이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세우던 파시즘의 광기와 횡포에 맞서려는 것이다.

3. 이단아 이상의 독특하게 튀기 전략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 경술국치, 한일합병조약이 8월 22일 비밀리에 조인되고 이듬해 8월 29일 반포됨으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봉건왕조의 몰락과 함께 김해경 이상(李箱)은 1910년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태어났다. 이미 그 시작부터 뿌리 채 흔들렸던 한반도의 기운을 받으며 태어난 이상은 일제 강점기 파시즘 속에서 자라나 근대를 겪으면서 근대 문물의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의 일환으로 이상의 시에는 근대의 표상물인 백화점과 전위 현대 미술의 키치적 환상이 자주 등장한다. 이상의 전위적 실험주의 문학이 이르고자 했던 것은 근대 넘어서기였지만, 이상은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좌절하고 만다. “수학과 건축의 기호들, 말장난과 숫자들로 조합된 시들을 써서 근대를 희롱하던 천재 시인 이상은 마침내 근대의 바다에서 난파당한 채 근대의 이단아로 떠돌다가”²⁰⁾ 1937년 4월 17일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만 26년 7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여기서 평준화 된 삶이나 평범한 삶이 아닌 이단아의 삶 그 자체는, 전위적 실험주의적 문학이 갖는 독특하게 튀기 전략과 일맥상통하며 그 자체가 바로 반파시즘적이다. 혁명적 파시스트 이념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

20) 장석주, 『이상과 모던뽀이들』, 현암사, 2011년, 341쪽.

해서 “모든 현존하는 구조들”, “그것이 정당이건, 노동조합이건, 가족이건, 교회건 평준화”를 요구한다. 또한 “혁명은 국가를 위해서만 살아갈 ‘새로운 파시스트적 인간’의 창출을 포함”하며, “현실적인 인간은 사실상 다양하고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유토피아 안에 자리잡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유토피아주의는 항상 테러를 불러 온다”²¹⁾. 평준화를 거부한 이상의 삶의 전략이 바로 가장 시대를 거스르는 저항이었던 셈이다.

이상이 죽은 뒤 김기림은 이상이 “오늘의 환경과 종족과 무지 속에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천재”였음을 선언하고, 이상이 “한 번도 ‘잉크’로 시를 쓴 일이 없”고 이상의 “시에는 피가 임리(淋漓)”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그는 스스로 제 혈관을 짜서 ‘시대의 혈서’를 쓴 것이다. 그는 현대라는 커-다란 파선에서 떨어져 표랑하던 너무나 처참한 선체조각이었다”라고. 여기서 김기림이 명명한 ‘시대의 혈서’가 바로 이상의 작품들이다. 이미 혈서²²⁾라 함은 그 자체로 거센 저항과 항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기림은 이상의 작품에서 바로 그러한 혈서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다. 이상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애도한 김기림은 1949년 이상의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상선집』(백양사)을 발간하고 그 서문에서 이상을 ‘순교자’로 보고 있다.

<...>구주문명의 천박한 식민지인 동경 거리의 추잡한 모양과, 그중에서도 부박한 목조건축과, 칠없는 ‘파시즘’의 타류에 퍼붓는 욕만 잠뵈 쓴 편지를 무시로 날리고 있던, 행색이 초라한 모습이 수상한 ‘조선인’은, 전쟁 음모와 후방 단속에 미쳐 날뛰던 일본 경찰에 그만 붙잡혀, 몇 달을 간다(神田)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 있었다. 그 안에서 그는 비로소 존경할 만한 일인(日人)

21) 페스모어, 케빈, 같은 책, 44쪽.

22) 제 몸의 피를 내어 자기의 결심, 청원, 맹세 따위를 글로 씀. 또는 그 글.

지하운동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위낙 건강을 겨우 부지하던 그가 캄캄한 골방 속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천대받는 동안에, 그 육체가 드디어 수습할 수 없이 도어서야, 경찰은 그를 그의 옛 하숙에 묻자 그대로 팽개쳤던 것이다. 무명처럼 옅고 희어진 얼굴에 지저분한 검은 수염과 머리털, 뺨만 남은 몸뚱어리, 가쁜 숨결— 그런 속에서도 온갖 지상의 지혜와 총명을 두 날 초점에 모은 듯한 그 무적(無敵)한 눈만이, 사람에게는 물론 악마나 신에게조차 속을 리 없다는 듯이, 금강석처럼 차게 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과 조국과 시대와 그리고 인류의 거룩한 순교자의 모습이었다.²³⁾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시대의 혈서’와 더불어 ‘거룩한 순교자’라는 명명은 이상 문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단초이다. 여기서 특히 ‘순교자’²⁴⁾는 ‘혈서’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표현이다. 혈서와 순교는 이상의 삶 그 자체가 항거의 역사이며, 그 역사에 바탕을 둔 그의 작품세계 역시 항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항거 또는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저항은 물리적으로는 물체의 운동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일컫는다. 더욱이 저항은 정신 분석학에서는 환자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상의 작품들 속에 드러나는 반과시즘적인 정서도 실상은 시대적 저항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김기림의 이상에 대한 비평은 기왕의 비평 가운데 이상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결부하여 보았던 대표적인 비평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었던 대표적인 비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문화』제1집에 실린 『이상론 - 근대적 자아의 절망과 항거』에서 임

23) 김기림, 『이상선집』서문, 백양당, 1949.3.

24) 모든 압박(壓迫)과 해를 물리치고 자기(自己)의 믿는 종교(宗教)를 위(爲)하여 목숨을 바침.

종국은 이상을 두고 “조난한 세대의 혈서를 써놓은 시인”, “20세기의 김삿갓”, “인간의 무지와 불성실이 빚어낸 절망과 비극을 초극하려던 예지와 성실의 사도”²⁵⁾ 등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적 정치 현실과 내부적 의식으로 절망하며 항거하는 이상 시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류광우는 『이상문학연구』를 통해서 이상의 문학이 “식민지 시대 상황과 긴밀한 내적 조응관계를 함축”²⁶⁾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류광우는 “이상의 문학을 그의 현실인식 태도와 관련하여 파악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중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식민지 시대의 급제된 상황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저항의 우회적 표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회적이라 함은 도피의 양상이기 보다는 검열을 피해 작가의 의식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현실에 저항하고 있음을 제시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작가의 현실인식은 모더니즘 기법, 모티프, 프롤로그, 그 밖에 시간·공간 개념의 초월 등의 구현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승훈은 『이상 -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라는 저서의 머리말에서 이상의 시 「아침」을 인용하면서 “식민지 시대 폐결핵을 앓던 한 지식인 청년이 그의 밤을 ‘코없는밤’으로 인식했다면 이런 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곧 식민지 현실의 알레고리가 된다”²⁸⁾며 “그의 문학이 시대성을 띠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승훈은 또 이에 덧붙여 “개인 이상은 이미 개인의 차원을 초월하고 민족의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서정시는 개인의 세계로 침잠할수록 사회적 현실을 드러낸다고 말한 건

25) 정운현, 『임종국 평전』, 시대의 창, 2006, 142쪽.

26) 류광우, 같은 책, 9쪽.

27) 같은 책, 259~260쪽.

28) 이승훈, 『이상 -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6쪽.

아도르노(T.W. Adorno)”임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의 세계, 전체주의 체제만을 옹호하던 당대를 거스르는 행위 즉, 개인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은 반파시즘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기도 하다.

4. 이상의 시에 드러나는 시대적 저항성

이미 앞서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반파시즘적 정서를 살펴본 바 있다. 반파시즘적 정서는 당시 시대가 파시즘에 몸살을 앓고 있던 일제 강점기였기에 당대 문인, 적어도 각성있는 문인이라면 기본으로 깔려 있을 정서라고 본다. 이러한 정서에 대해서 김향안은 “식민지 공기를 호흡하면서 자라난 청년의 피 속에서 자연현상으로 발로된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대를 같이 살아온 우리에게 공감되는 이해가 간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상이 “오래 검문 당하면서도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동소문(東小門) 밖에서 시내에 들어오려면 우리들은 혜화동 파출소를 지나야 했고 반드시 검문(檢問)에 걸렸다. 특히 한복 차림의 이상은 수상한 인물의 인상을 주었지만 보호색(保護色)으로 바꾸려하지 않고 하루 한번씩 일경(日警)과의 언쟁(言爭)을 각오하면서도 어머니가 거두어주시는 한복을 편하다고 즐겼다.

이상의 불행(不幸)은 식민지 치하라는 치명적인 모욕감을 당했을 때 치미는 분노(憤怒)와 저항의식이었다고 본다.²⁹⁾

이러한 기본적인 시대적 저항적 정서들을 드러내고 있던 이상이었기에 단순히 시대에 무관심했던 초현실주의자로만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

29) 김향안, 『월하의 마음』, 환기미술관, 2005. 394쪽.

다. 더군다나 김기림으로부터 “순교자”로까지 불리게 된 이상은 자신의 “시대의 혈서”를 통해서 “시대”를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이상의 시대적 저항성을 「異常한 可逆反應」의 「空腹」, 「BOITEUX · BOITEUSE」, 「建築無限六面角體」의 「AU MAGASIN DE NOUVEAUTES」, 「鳥瞰圖」의 「詩第一號」등을 중심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반과시즘적 정서를 무심한 어투로, 다시 말해서 남의 이야기하듯한 어투로 노래하고 있는 이상이지만, 「이상한 가역반응」의 「공복」에서는 그런 무심한 어조 속에서 강한 시대성을 읽게 한다.

<…>

이손은이제는이미아무것도所有하고싶지도않다所有된물건의所有된것을
느끼기조차하지아니한다.

×

只今떨어지고있는것이눈(雪)이라고한다면只今떨어진내눈물은눈(雪)이어
야할것이다.

나의內面과外面과

이件의系統인모든中間들은지독히춥다.

<…>

困難한 勞働만이가로놓여있는이整頓하여가지아니하면아니될길에있어서
獨立을固執하는것이기는하나

추우리로다

추우리로다

×

누구는나를가리켜孤獨하다고하느냐

이群雄割據를보라

이戰爭을보라

×

나는그들의軋轢의發熱의한복판에서昏睡한다.
 심심한歲月이흐르고나는눈을떠본즉
 屍體도蒸發한다음의고요한月夜를나는想像한다.
 <...>30)

시 「공복」은 1931년 7월『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발표된 일본어로 쓰여진 일문시이다. 이어령은 「공복」의 표제적 의미가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궁핍”을 뜻한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아내로 상징되는 부재하는 타인의 디스코뮤니케이션의 상태”³¹⁾로 보고 있다. 반면, 이승훈은 “두 자아의 교통단절의 상태로 읽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해설한다. 그리고 임종국은 “비관과 염세가 표현되어 있”³²⁾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시임은 부인할 수 없다. 시 제목인 “공복”이 주는 강한 메시지는 이어령의 “존재론적인 궁핍”이나 임종국의 비관을 빗겨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말 그대로 “공복”과 지독히 추운 현실은 무관하지 않다. 이상은 일본어로 이 시를 표현하면서 제목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와 떨어지는 눈(雪), 그리고 “지독히춡다” “추우리로다”의 2번 반복 등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시대적 암울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시체도증발한다음의고요한월야를” 상상하는 시인은 미래를 투영해서 평화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꿈꾼다. 시체가 널려있는 현실을 떠나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는 것도 현실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어로 시 창작을 하기 전 이상은 일본어로 습작기를 거친다. 김향안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하라고 일본말로 공부를 안 했어야 옳았을까?” “이

30) 이상a, 43~44쪽.

31) 같은 책, 115쪽.

32) 『이상문학전집 4 - 연구 논문 모음』, 문학사상사, 85쪽.

상은 일본말로 문학공부를 해서 모국어를 찾은 것이 아닐까.” “모국어를 내던져둔 채 많은 시를 일본말로 쓴” 것이 아니라 “모국어를 쓰기 위해서 많은 시를 일본말로 공부한 것이라고”³³⁾ 술회하고 있다. 김향안은 특히 이상이 쓴 일본어로 된 습작시들까지 모조리 번역하여 일문으로 시를 쓴 시인이 된 이상에 대하여 마음 아파한다. 더욱이 이상의 시에 대해서 항일시를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한다.

그러나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는 총명한 젊은이 이상이다. 재기가 넘치고 젊음을 구가하던 이상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단어들이 당대의 분위기를 외면한 것이라고 어찌 이야기 하는가? 1931년 6월 5일이면, 이미 만주사변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고 전쟁과 살벌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화석”한 손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도 않고, 소유된 물건이 내 것인지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한 자신의 현실감각을 꼬집고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한 가역반응』안에 실린 다른 작품 『BOITEUX · BOITEUSE』를 살펴보자.

긴것

짧은것

열十字

×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묻어있었다

墜落

不得已한平行

33) 김향안, 같은 책, 392쪽.

物理的으로아팠었다

(以上平面幾何學)

×

오렌지

大砲

匍匐

×

萬若자네가重傷을입었다할지라도피를흘리었다고한다면참멋적은일이다

오—

沈默을打撲하여주면 좋겠다

沈默을如何히打撲하여나는洪水와같이騷亂할것인가

沈默은沈默이나

메쓰를갖지아니하였다하여醫師일수없을것일까

天體를잡아찢는다면소리짚은나겠지

나의步調는繼續된다

언제까지도나는屍體이고자하면서屍體이지아니할것인가³⁴⁾

『이상한 가역반응』의 『BOITEUX · BOITEUSE』는 『공복』과 더불어 이상의 초기시 6편 중의 하나이다. 1931년 6월 5일에 발표된 『BOITEUX · BOITEUSE』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어로 ‘절름발이 남자, 절름발이 여자’를 뜻하는 이 제목은 이상의 상징에서 부부이자,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34) 이상a, 41~42쪽.

절름발이임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간에 등장하는 ‘대포’를 총이나 막대기처럼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³⁵⁾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단어 그대로 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시 「수염」의 “1소대의군인이동서의방향으로전진하였다고하는것은무의미한일이아니면아니된다”라는 시행에서처럼 군인과 관련된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³⁶⁾이 바람직하다. ‘포복’은 억압받는 시대적 중압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남녀의 성적 행위나 사물이 결부된 시각화된 진술이 아니라 상징의 관념적 진술일 뿐이다.

특히 『BOITEUX · BOITEUSE』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네 번씩이나 강조 반복되는 ‘침묵’은 시대성으로 읽을 수 있다. ‘침묵’도 「이상한 가역반응」의 ‘변비증 환자’의 상징에 연결되어 제대로 발화되지 못함을 말한다. 시적 자이는 그러한 침묵을 깨뜨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타박’함은 침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홍수와같이소란할것인가”라는 역설로 어두운 현실에 더 큰 소리로 즉 ‘홍수’와 같은 싹 쓸어버리는 막강한 힘으로 대적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어두운 현실, 즉 전쟁과 결부되어 파괴되고 억압받는 ‘현실’을 뜻한다. 마지막 행에서 “언제까지도나는시체이고자하면서시체이지아니할것인가”는 시체 아닌 시체로 표현된 시적화자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결국 이상은 현실이라는 현실적 삶을 상실한 해부대 위에서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기” 침묵 아닌 침묵을 하고 있다. 이상의 마지막 소설 『종생기』에서도 이상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시체’를 반복하고 있다.³⁷⁾ 침묵하는 시체, 그런데 시체가 아님을 강조하는 모순 속에서 어느 것보다도 처절한 저항의 표식을 남긴다. 그것은 시 제목인 “BOITEUX · BOITEUSE” 바로 불구라는 단어이다. 전쟁

35) 이승훈, 같은 책, 112쪽.

36) 조수호, 『이상 읽기』, 지식산업사, 2010. 338쪽.

37) “즉 나는 시체다. 시체는 생존하여 계신 만물의 영장을 향하여 질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의 상처, 대포를 맞은 상처, 그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처절한 저항이 어디 있겠는가?

시 「AU MAGASIN DE NOUVEAUTES」는 1932년 7월 『조선과 건축』에 일문으로 발표한 시로서, 「건축무한육면각체」라는 표제 하에 다른 6편의 시들³⁸⁾과 함께 실렸다. 이 시의 제목인 AU MAGASIN DE NOUVEAUTES는 ‘새롭고 기이한 백화점’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알려져 있지만, 백화점을 나타내는 프랑스어 ‘Grand Magasin’과는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고 본다. 특히나 건축무한육면각체 라는 표제어는 어느 구체적인 공간으로 확정되지 않는 곳이다. 그것은 “무한히 확장과 축소가 가능한 이상의 인식 안의 관념적·상징적 규정이기 때문”³⁹⁾인 것으로 추정된다. AU MAGASIN DE NOUVEAUTES는 그러므로 ‘새로움, 독창적인 것들의 창고 또는 가게에서’⁴⁰⁾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여기서의 창고나 가게는 “이상의 건축무한육면각체 ‘□’ 안에 포함된 사물과 의식을 의미”⁴¹⁾한다. 그리고 독창적인 것들이라 함은 “이 시의 내용과 표현기법이 매우 독특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구조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도 남기 때문”이다. 시 「AU MAGASIN DE NOUVEAUTES」는 다음과 같다.

四角形의內部의四角形의內部의四角形의內部의四角形 의內部의 四角形.

四角이난圓運動의四角이난圓運動 의 四角 이 난 圓.

비누가通過하는血管의비눗내를 透視하는사람.

地球를 模型으로만들어진地球儀를模型으로만들어진地球

38) 「열하약도 No.2」, 「진단 0:1」, 「22년」, 「출판법」, 「차8씨의 출발」, 「대낮」등.

39) 같은 책, 165쪽.

40) 「MAGASIN」과 관련하여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가시적인 세계는 이미지와 기호의 한 창고에 불과하다 / Tout l’univers visible n’est qu’un magasin d’images et de signes”

41) 같은 책, 166쪽.

去勢된洋襪(그女人의이름은워어즈였다).<…>
 마르세이유의봄을 解纜한코티의 香水의마지한東洋의가을.
 快晴의空中에鵬遊하는Z伯號. 蝨蟲良藥이라고써어져있다.<…>
 時計文字盤에XII에내리워진二個의浸水된黃昏.<…>
 검은잉크가엮질러진角雪糖이三輪車에積荷된다.
 名啣을짓밟는軍用長靴. 街衢를疾驅하 는 造 花 金 蓮.<…>
 四角이난케-스가건기始作이다(소름끼치는일이다).
 라지에-타의近傍에서昇天하는꼴빠이.
 바깥은雨中. 發光魚類의群集移動.⁴²⁾

시 『AU MAGASIN DE NOUVEAUTES』8행의 “마르세이유의봄을해람
 한코티의향수의맛이한동양의가을”은 “1930년대의 역사적 상황을 상징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양의 가을은 앞으로 겨울이 다가올 것을 뜻”하며,
 “전쟁과 억압의 암울함을 암시하는 것”⁴³⁾으로 해석한다. ‘마르세이유’라는
 지명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지중해 지역 세력이 서부 유럽으로 진
 출하는 해안 교두보의 구실”을, 또 “산업혁명 이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의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를 상기시키는 이름이다. 이는 한반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일제의 교두보 역할을 한 사실과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였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상은 단순히 그리고 우아한 시적
 고유명사로 ‘마르세이유’를 끼워 넣은 것이 아님을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다.

16행의 “명함을짓밟는군용장화”는 ‘군용장화’⁴⁴⁾가 표상하는 힘이 인간

42) 이상a, 71~72쪽.

43) 조수호, 같은 책, 177쪽.

44) 『오감도 시제15호』“확실한내꿈에나는결석하였고의족을담은군용장화가내꿈의백지
 를더럽혀놓았다.” 그리고 『실화』“어느 장화가 짓밟았을까” 등에서도 위의 시와 같은
 군용장화의 상징이 쓰여지고 있다.

을 짓밟는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과 억압을 의미한다. 같은 행에서 이어지는 “가구를질구하는조화금련.”은 불전에 공양하는 황금색으로 만든 연꽃이 조화, 즉 가짜 연꽃이며 거리를 빠르게 달린다는 ‘질구’에 연결시킬 때 사람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이 읽혀지며 불심에 의지하고자 달려가는 1930년대의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19행의 “사각이난케이스가걷기시작이다(소름끼치는일이다).”에서 ‘사각이난케이스’는 이상의 ‘상(箱)’⁴⁵⁾, ‘사각’ 즉 두 자아가 결합한 이상 자신을 상징한다.⁴⁶⁾ ‘사각이난케이스’가 걷는 것을 ‘소름끼치는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소름끼치는일’은 이상의 분리된 자아의 결합과 그에 따른 갈등·대립 등을 상징하며 이상의 시에서 자주 반복되는 혼란을 의미한다.⁴⁷⁾ ‘건축무한육면각체’와 동일하게 이상의 관념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소름끼치는일이다’라는 표현은 이상의 다른 시에서 반복되는 단어와 감상이기도 하다.⁴⁸⁾ 여기서 현실을 ‘소름끼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이상의 태도를 통해서 당대 현실에 대한 이상의 거부감을 읽을 수 있다.

시 『AU MAGASIN DE NOUVEAUTES』는 비록 적극적인 직설법적 표현은 아니지만 당 시대를 진저리나게 생각하는 이상의 저항성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더욱이 이 시의 마지막 행인 “바깥은우중. 발광어류의군집이동.”은 당대의 시대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드러내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함축시키고 있다. 여기서 바깥은 1930년대 한반도의 바깥을 의미하며, 비가 오고 있다는 ‘우중’에서 비는 우울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이 시의 중간

45) 이 시의 원문 일어 시에서 이상은 ‘箱’이라고 썼다.

46) 조수호, 같은 책, 188쪽.

47) 같은 책, 189쪽.

48) 같은 책, 190쪽. 『▽의 유희』에서 “슬리퍼가땅에서떨어지지아니하는것은너무소름끼치는일이다.” 그리고 『조춘점묘』에서 역시 “지상에 살 자적이 그리 없다는 것을 가깝 느끼는 까닭 [...] 소름이 연 쪽 끼쳤다.” 등.

에 나오는 ‘침수된황혼’과 연결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발광어류’의 발광(發光)이 빛을 발산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음이의어로 발광(發狂)을 연상시키며 전쟁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을 상기시킨다. “바깥은우중. 발광어류의군집이동.”은 ‘동양의가을’, ‘침수된황혼’, ‘군용장화’와 호응하여 전쟁의 우울한 면, 억압과 폭력, 그리고 화기(火氣) 사용에 따른 참혹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시 『AU MAGASIN DE NOUVEAUTES』 ‘새로움, 독창적인 것들의 창고 또는 가게에서’는 전반부에 1930년대의 세계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1930년대의 국내 모습과 그 속의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름끼치는일’로 표현한 것은 당시 시대에 대한 이상의 반응이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대표작 『오감도』는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15회 연재되다가 독자들의 항의로 중단되었다. 나머지 15회가 더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생긴 일은 이상에게는 너무도 서운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이상은 연재가 중단된 뒤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數十年씩 떨어져도 마음 놓고 지낼 作定이나. 모르는 것은 내 제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보아야 아니하느냐. 여남은 개썰 써보고서 詩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三十一年 三十二年 일에서 龍대가리를 떡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만두니 서운하다.⁴⁹⁾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악평이 드셨던 당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

49) 이상, 『이상문학전집 3 - 수필』(김윤식 엮음), 문학사상사, 353쪽.

구하고 한반도 현실이 수십 년씩 뒤져있던 당시를 한탄하고 항거하는 이상의 위 의 글은 얼마만큼 작품 『오감도』가 이상의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을 지를 가늠하게 한다. 이상이 『오감도』를 쓰던 당시는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때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는 계몽주의적 인 도구적 이성 에 기초하여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킨 서양의 공업선진국들 - 영국, 프랑스 등 -이 아직도 산업화가 덜 되고 사회가 계몽되지 않은 저개발국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이들을 자신들의 산업원료 공급기지화함과 동시에 이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산업발전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되어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한 일본 이 이를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당시 한국은 아직도 산업과 공업에 있어 현대화가 안 된 상태였으므로, 먼저 현대화된 일본 제 국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시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는 현대화의 근간이 되는 도구적 이성과 계몽주의에 던지는 도전장이기도 하다. 『오감도』의 『詩第一號』는 이성중심적이고 인과법칙 에 기반을 둔 현대화를 해체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은 이 시에 나타난 우연성과 자의성 그리고 모순성에 의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⁵⁰⁾ 여기서 『詩第一號』를 살펴보자.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
(길은막달은골목이適當하오.)

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50) 이정호, 「〈오감도〉에 나타난 기호의 질주」,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년, 336~337쪽.

第四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五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六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七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八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九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十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十三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러케뿐이모혔소.
 (다른事情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쫓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쫓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쫓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쫓소.

(길은뚝넋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여도쫓소.⁵¹⁾

『詩第一號』에 대해서 임종국은 절망적 양상으로 “13인의 아해가 존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⁵²⁾로 인해 공포를 느낀다고 하고 있고, 이승훈은 “대상이 분명치 않은 무서움의 세계”라고 하면서 “객관적 이유가 없거나, 대상이 분명치 않은 무서움의 세계는 공포가 아니라 불안”으로 정리하

51) 이상a, 86~87쪽.

52) 임종국, 『이상연구』, 『이상문학전집 4』, 문학사상사, 1995, 64쪽.

고 “13인의 아해가 불안을 표상하며 동시에 시달린다는 점”으로 요약하고 있다. 여기에 김향안(변동립)은 까마귀를 일본으로 해석하고, “까마귀가 내려다보니까, 우리들은 무서워서 달아날 곳을 찾지만, 땅 위에는 숨을 곳도 달아날 곳도 없었던 —. 그래서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들의 전쟁이 벌어진다”⁵³⁾고 해석하면서 그림처럼 보는 시를 이상이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국은 이상의 “작품과 생애를 통하여 근대적 중압을 뚫고 신장하려는 자아의 격렬한 의지가 발견됨”을 논증한 바 있고, “‘준엄성’, ‘인류애’, ‘근대적 자아의 격렬한 표현 의지’는 그의 전작품과 생애를 일관하는 저류, ‘상의 근본적 정신’이었음을 명언”⁵⁴⁾한 바 있다. 『詩第一號』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지만, 적어도 앞서 언급한 관점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현실,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공포, 불안, 전쟁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종국은 “존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승훈은 “현대인이 실존을 체험하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⁵⁵⁾하면서 실존을 언급한다. 반면, 이정호는 “원인과 결과에 기초한 인과법칙을 해체한 빈 자리에 서 있는 시”⁵⁶⁾가 된다고 하면서 “이 시는 단지 무의미한 시에서 끝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붙들고 늘어진 것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이정호는 “이 시는 언어기호가 무엇을 의미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가정을 해체하고 붕괴시켜 언어는 아무것도 지시하거나 의미하지 않는다는 폭탄선언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가 대표하는 현대성=이성중심주의=계몽철학을 전복함으로써 도구적 이성이 중심이 되는 로고스 중심주의에 반

53) 김향안, 『이젠 이상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 『문학사상』, 1986.5, 61쪽.

54) 임종국, 같은 글, 92쪽.

55) 이승훈, 『<오감도 시제1호>의 분석』, 『이상문학전집 4』, 341쪽.

56) 논리적으로 따져 볼 때 이 시의 처음이 이 시의 끝처럼 결말이 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를 뒷받침할 논리전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에는 바로 그런 과정이 빠져 있다. 이정호, 같은 글, 337쪽.

기를 들고 있”⁵⁷⁾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정호의 논리에 따르면 이 시는 “제국주의적 일본만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표방하는 모든 것을 뿌리째 뒤엎고 있는 셈”⁵⁸⁾이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 수준의 저항인 것이다.

요컨대, 『詩第一號』는 1930년대를 이상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현실을 관조하며 서술한 상징시, 관념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3인의 아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에 대해서 신형철은 “조선인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며 오직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어린 아이(‘아해’) 같은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해들이 ‘13’명이라는 설정 역시” “‘13’이라는 숫자가 환기하는 일차적인 느낌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것은 불길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타자성’ 그 자체의 숫자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분히 서구적인 그것도 기독교적 문명관에 익숙한 숫자관이라는 점에서 불길한 타자성을 표상하는 데 ‘13’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다. 신형철은 이어서 “이상의 눈에 조선인들은 식민지 근대의 도시 경성이라는 매트릭스(matrix)에서, 편제하는 ‘공포’에 휘둘리면서 ‘막다른 골목’을 향해 편집증적인 ‘질주’를 ‘반복’하는 불길한 타자들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정호는 “여기에 쓰인 숫자는 아주 자의적”이고 “13이라는 숫자가 어떤 확실한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확실성을 가장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 것”임을 제안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흥미 있는 해석이 있어 주의를 끈다. 조수호는 아해들을 일단 국가로 본다. 그리고 가장 큰 공포로 전쟁을 떠올릴 수 있다. 1930년대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적인 전쟁과 억압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다.⁵⁹⁾ 지속되는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광풍으로 휩

57) 같은 글, 337~338쪽.

58) 같은 글, 338쪽.

59) 조수호, 같은 책, 372쪽.

쓸던 시기였다. 이상 문학은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2행에서 설정한 ‘막다른골목’은 그러한 진행의 끝, 즉 파국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도로, 그것은 인류 도로의 시간성에서 끝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 후반부에서 그 길은 뚫린 골목으로 다시 상쇄된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행에서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다고 말한다. 이 시구는 다른 길로 달려갈 것을 암시하는데, 다른 길이란 다름 아닌 ‘자연의 길’이며 ‘인간성의 길’ 즉 휴머니즘의 열린 길⁶⁰⁾이다. 과학 물질문명의 길이 아닌 자연과 인간 정신의 길이며, 상살의 공포가 해소된 상생의 길이다. 이상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감만을 이 작품 안에 담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보다 더 큰 인류에 대한 시대적 저항감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5. 나오는 말

이상의 시 작품 속에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항거와 저항의식을 연구하고자 했던 노력은 여타 다른 영역에 대한 이상 연구에 비해 그리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몇 연구들은 그 흐름을 면면히 이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기림, 임종국 등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시대의 혈서’를 쓴 ‘거룩한 순교자’ 이상의 작품에 김기림은 일찌감치 시대적 저항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임종국은 외부적 정치 현실과 내부적 의식으로 절망하며 항거하는 이상 시인의 모습을 강조하였고, 류광우 역시 식민지 시대의 금제된 상황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저항의 우회적 표현을

60) 이상은 일본으로 가기 전에 “휴머니즘은 승리한다!”고 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인류라는 명제를 되풀이했다고 한다. 같은 책, 373쪽.

하고 있는 이상의 문학에 주목한 바 있고, 이승훈도 이상의 문학이 시대성을 띠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음을 기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왕의 연구는 식민지 시대의 시대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회적 저항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우회적 저항성이 아닌 반과시즘적 정서에 기반을 둔 직접적인 시대적 저항성에 그 예각을 세워 다양한 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열려 있는” 난해한 시들의 저자인 시인 이상의 내면세계에 현실에 대한 촉구, 시대에 대한 저항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시 『광녀의 고백』, 『AU MAGASIN DE NOUVEAUTES』(1932), 『열하약도 No.2』, 『보통기념』, 『오감도 - 시제십이호』(1934)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읽혀지는 반과시즘적 표현 및 심상들이 읽혀짐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시대적 저항적 정서들을 드러내고 있던 이상이었기에 단순히 시대에 무관심했던 초현실주의자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기림으로부터 “순교자”로까지 불리게 된 이상은 자신의 “시대의 혈서”를 통해서 “시대”를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시대적 저항성을 『이상한 가역반응』의 『空腹』, 『BOITEUX · BOITEUSE』, 『건축무한육면각체』의 『AU MAGASIN DE NOUVEAUTES』, 『오감도』의 『詩第一號』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더니즘의 기수인 이상의 시작품들 안에 숨 쉬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시대적 저항성을 밝혀내어 이상이 암울한 시대를 스스로 견디어내고자 애썼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이상의 작품이 모더니즘이라는 나르시시즘적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와 세상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모더니즘의 일반적 경향인 시대와 동떨어진 존재, 혹은 식민지 현실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인이라고 평가되는 것조차 그릇된 편견이자 오류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보았다. 오히려 단순히 일제 강점기

의 시대적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 인류에 대한 보편적 휴머니즘까지 노래하고, 일제에 대항한 저항감 뿐 아니라, 당시 세계가 앓고 있던 제국주의 병에 대한 저항을 치밀한 시적 구도 속에 담아내었음을 보았다. 시인 이상이 시 창작 상에서 극단적인 형식파괴를 감행하면서 일제강점기라는 특수 상황을 전위적 모더니스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본색을 숨겨서 일제의 눈을 피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100년이 넘도록 행복한 고민의 시간을 주려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한 세기 앞을 보는 선각자의 눈으로 당대를 견디어내야 했던 재기 넘치는 호모 노마드 이상의 시대적 저항성은 늘 현재형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상, 『증보정본이상문학전집』(전3권, 주해서), 소명출판, 2009.
이상, 『이상, 한국현대시문학대계 9』, 지식산업사, 1982.
이상, 『이상문학전집 1 - 詩』(이승훈 엮음), 문학사상사, 1989.
이상, 『이상문학전집 3 - 隨筆』(김윤식 엮음), 문학사상사, 1993.
『이상문학전집 4 - 연구 논문 모음』(김윤식편저), 문학사상사, 1995.
이상, 『이상전집 2』, 가람기획, 2007.

2. 단행본

- 권영민,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김향안, 『월하의 마음』, 환기미술관, 2005.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류광우, 『이상문학연구』, 충남대학교출판부, 1993.
류보선,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소명출판, 2006.
신범순 외, 『이상 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
이상문학회, 『이상시 작품론』, 역락, 2009.
윤해동 외,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2』, 역사비평사, 2006.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0.
이상갑,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역락, 2006.
이승훈, 『이상 -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장석주, 『이상과 모던뽀이들』, 현암사, 2011.
정운현, 『임종국 평전』, 시대의 창, 2006.
조수호, 『이상 읽기』, 지식산업사, 2010.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패스모어, 케빈, 『파시즘』, 강유원 옮김, 뿌리와의파리, 2007.

3. 논문 및 기타

- 김승희, 『30년대 모더니즘 운동에 있어서의 반시 - 김기림·이상을 중심으로』, 『시와

- 반시』겨울호, 1992, pp. 49-69.
- 김향안, 『이젠 이상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 『문학사상』, 1986.5, p.61.
- 김효신, 『1930년대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파시즘 양상 연구』, 『한국 사상과 문화』제5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pp. 115-151.
- _____, 『이탈리아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 비교 소고』, 『이탈리아어문학』제21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7, pp. 25-64.
- _____, 『미래주의 선언과 한국 문학 - 1930년대 시를 중심으로 -』, 『외국문학연구』제4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0, pp.77-104.
- 우재학, 『이상시 연구 - 탈근대성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승훈, 『192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vol.29, 1996.

Abstract

The Poems of Yi-Sang and the Resistance of the Times

Kim, Hyo-shin

This article will show how most accepted criticism about Yi-Sang's poetry are far away from his era's tendencies, namely Korean Modernism. And, these criticisms are generally indifferent of the Colonial Realities.

Antifascist Expressions and Images can be foun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oems of Yi-Sang. Poems like: "The Confession of A Mad Woman", "AU MAGASIN DE NOUVEAUTES"(1932), "The Rough Map of Rehe No.2", "The Ordinary Commemoration", and "The 12th Poem of The Crow's-eye View"(1934). Yi-Sang should not only be regarded as a Surrealist, simply indifferent about the Times, because he also expressed about the emotional resistances of the Times, which were very common and natural among the right-minded intellectuals who had to endure the contemporary darkness and agony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Even though Ki-Rim Kim called Yi-Sang a 'Martyr' after his death, Yi-Sang wanted to truly reveal his 'Times' through 'Writing in Blood'. Yi-Sang's Resistance of the Times can be found in the poems: "The Empty Stomach of The Strange Reversible Reaction", "BOITEUX · BOITEUSE of The Strange Reversible Reaction", "AU MAGASIN DE NOUVEAUTES of The Architecture Infinite Cube", and "The First Poem of The Crow's-eye View".

Key words : Yi-Sang, The Resistance of the Times, Anti-Fascism,
Consciousness of Resistance, Modernism.

김효신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주소 : 대구 동구 신서동 신서화성파크드림 105동 2906호

전화번호 : 010-3199-3397

이메일 : hskim1@cu.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

